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넷째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마지막주를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9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마지막주 1 - 감사와 회개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1)

8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무수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며, 직장과 사역지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토해낸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소홀히 하며 바쁜 일상에 묻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등한시했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9월과 남은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마지막주 2 -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새벽 시간 조용히 가정의 가장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도록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각 가정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에게는 가정을 따뜻하게 돌보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목사와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성도들을 참된 진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자들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특별히 돌아보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마지막주 3 -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34)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8월 광복절을 지나며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보다는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며 정의롭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과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산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져서 그곳의 백성들이 참된 해방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열방 앞에서 복음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마지막주 4 - 개인의 믿음 성장을 위한 기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18)

새로운 달을 앞두고 각자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새벽을 맞아 각자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올바르게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을 맞이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예배 대표기도문 8월 마지막주 5 -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의 기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아쉬움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새벽을 맞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지난 8월 동안 계획했던 일들 중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았고, 때로는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으로 인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9월을 앞두고 각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를 맞아 학업에 정진하며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에게는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동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사역이나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세우며, 자신의 욕심이나 교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간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9월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얽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8월 마지막 주 새벽예배를 통해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